

구리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시. 동쪽은 남양주시·광주시, 서쪽과 남쪽은 서울특별시, 북쪽은 남양주시와 접한다. 면적은 33.30km², 인구는 19만5,054명(2008년 1월 현재)이다.

:: 태조 이성계의 능

역새가 돌보이는 태조의 건원릉

구리시 인창동의 동구릉(東九陵)은 태조를 비롯한 조선의 왕과 왕비의 능 9개가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태조 이성계의 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태조는 나고 자란 곳인 함흥을 항상 그리워했으며 죽으면 함흥에 묻히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승하한 뒤 함흥에다 능을 쓸 수는 없었기에 잔디(역새)만이라도 함흥 것을 가져다가 입히기로 했다. 잔디 대신 역새를 봉분에 입힌 것은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함흥은 서울에서 천리가 넘는 먼 곳이었기 때문에 역새를 죽이지 않고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한 신하가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 방법은 함흥에서 서울까지 사람이 쪽 늘어서서 역새 떼를 하나하나 받아넘기게 해서 운반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함흥 역새를 이곳까지 무사히 가져왔다.

그 후 태조 능의 역새가 혹 군데 군데 말라 죽어서 그 곳에 서울 역새를 대신 심으면 자라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왜적이 동구릉에 진입하여 태조 능에 불을 질렀는데 그 때 능 앞에서 난데없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을 꺼버렸다. 그러자 왜적들은 다시 불을 질



건원릉 구리시 인창동, 사적 제193호

렸지만 또 바람이 불어와서 불을 꺼버렸다. 세 번이나 불을 질렀는데 세 번 다 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겁을 먹은 왜적들은 감히 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밤에는 능 앞 비석이 장군으로, 역새는 군사로 변하여 왜적을 쳐부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조선 태조 영정

∴ 사노동 연시 효자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

옛날 지금의 사노동 양지마을에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았다. 어느 해 이른 봄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너무 가난한 살림이라 변변히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서 아들은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니 “얘야, 내가 연시(軟柿)가 먹고 싶어 구나”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삼월에 어디 가서 연시를 구한단 말인가?”하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나무 저 나무 쳐다보며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역시 사방을 헤매던 중 길가에 잠시 앉아 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앉아 비켜주지 않았다.

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집에 빨리 가야하니 제발 날 잡아먹지 말고 길을 비켜다오”하며 애원하였다. 그러자 호랑이는 덤비기

는커녕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이런 호랑이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날더러 타란 말인가?”하고 혼자 중얼거렸더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자기 등에 타도록 하였다.

호랑이는 아들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한참을 달려 불이 환하게 켜진 어느 집 문 앞에 도착하더니 그를 내려주고 사라져버렸다. 아들은 그 집 앞에서 “주인장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 아들을 사랑방으로 들어오라 하였다. 주인은 오늘이 제삿날이라 제수음식을 대접할 테니 요기나 하라고 하더니 잠시 후 갖가지 과일이 놓인 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에는 연시가 가득 쌓인 게 아닌가.

아들이 연시를 뚫어지게 바라만 보자 주인이 물었다.

“어찌 드시지는 않고 연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셨는데 연시를 드시고 싶다 하십니다.”

아들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은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제사에 쓰려고 연시를 보관하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하나도 썩지 않았다고 어머니 드리라면서 연시를 바구니에 싸 주었다. 아들은 밤이 꽤 깊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한시가 급했다. 주인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서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아들이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며 등에 올라 타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순식간에 집에 도착했다. 방으로 급히 들어온 아들은 연시를 꺼내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니는 연시를 먹고 곧 병이 나았다. 지극한 아들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어머니의 병이 낫도록 해주었던 것이다.